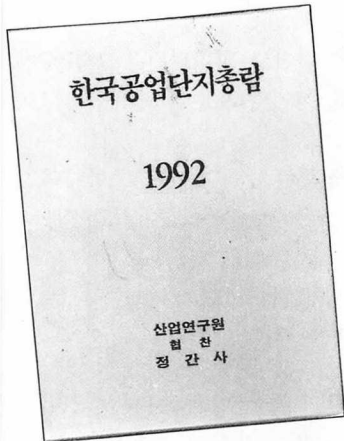


공업단지 조성의 역사와 현황

「한국공업단지총람 1992」



국내 공업단지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63년 3월 한국경제인연합회 내에 수출산업 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구로동 일대 99만여 평방미터 규모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수에 착수하면서 우리나라 공업단지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구로동 일대에 공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67개 공업단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한국의 경제는 그 생명력을 이어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도 이들 공업단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졌다. 이러한 때에 발맞춰서 「한국공업단지총람 1992」가 정간사에서 출판됐다. 산업연구원 협찬으로 꾸며진 이번 총람은 16명의 집필진이 참가, 국내 공업단지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각 도별 공업단지 위치, 교통편, 공단 조성 목적, 수립배경, 개발 계획, 연혁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단지 개요에서는 입주 업종과 자격, 입주 절차 등이 서술되어 있어 새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영인의 지침서 역할도 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이책에는 1963년부터 1991년까지의 공업단지 및 주요 경제일지와 함께 산업동향 및 전망을 소개하고 있다. 산업동향 및 전망 부분은 일반기계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가전산업, 일반전자부품산업, 산업용전자기기산업, 철강산업, 비철금속산업, 정밀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 반도체산업, 섬유산업 등 총 12개 부분 산업의 역사와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도표와 함께 설명했다.

신규 공업단지 조성현황 및 계획 부분에는 1991년 현재 공단 유치 지역의 조성 목적, 규모, 지원 시설 등을 정리했으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해설, 공업입지정책 방안과 개발지침 등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논문을 게재, 입지 확보난과 환경오염에 대한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편에는 공업발전법 등 각종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공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서술했으며 공업단지 관련 신문 기사 색인도 실었다.

부록편에는 주요 공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이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생산품 등을 소개하는 장으로 꾸며 실질적인 경영자료가 되도록 했다.

정간사 / B5 / 872면 / 60,000원

새로운 기획의 選集형 문학전집

「21세기 작가 총서」 시리즈



안는 허구가 아니라 진실을 쾌락으로 마취시키는 허구가 소설로 횡행한다는 점과 상업주의를 경고하기 위해 시리즈를 마련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획의도에 맞춰 '21세기 작가 총서'는 각 작가의 화보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작품을 쓰기 위한 수련과정 그리고 작품활동을 하는 과정을 작가 스스로 털어놓는 '나의 길, 작가의 길'을 마련했다. '나의 길, 작가의 길'에는 김성동씨가 '떠돌, 떠돌, 떠돌의 뒤안길'이라는 글을 통해 한학교육을 받던 어린 시절 그리고 집안 내력과 함께 승려가 됐던 사연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원우씨는 '피난동에서 소설가로 이어진 가파른 길'을 이인성씨는 '어쩌면 그일 나의 간추린 40년'을 김영현씨는 '내 추억의 푸른 길'을 각각 서술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작가에게 더욱 더 다가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4·19이후에 등단, 이제는 문단의 중견으로 자리잡고 있는 소설가들의 작품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소설전집이 '21세기 작가 총서'라는 이름으로 출판사에서 발행,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1차로 출판된 책들은 김성동씨의 「연꽃과 진흙」 김원우씨의 「벌거벗은 마음」 이인성씨의 「마지막 연애의 상상」 김영현씨의 「해남 가는 길」 등 4권. 이들 작가들은 해방 이후 태어난 한글세대로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언어의식과 문학의식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권오룡, 김사인, 임우기, 황현산, 현준만씨 등이 편집위원으로 작가·작품을 선정한 이 시리즈의 권말에는 동시대 평론가들이 보는 작가·작품론이 실려 있어 여타 평론가들이 보는 이들 작가의 작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선정위원들은 '진실을 아프게 꺼

시리즈에 실린 작품들은 해당 작가의 최신 작품, 문학성이 인정되는 작품, 작가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작품을 보면 「연꽃과 진흙」에 '풍적' '비내리는 아침'을 비롯 10편, 「벌거벗은 마음」에 '아득한 나날' 등 5편, 「마지막 연애의 상상」에 '한없이 낮은 숨결' 등 소설 9편과 희곡 '잃어버린 사진' 「해남 가는 길」에 '고도를 기다리며' 외 8편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21세기 작가총서 간행위원들은 이 책 이외에도 이문열, 박범신, 임철우, 오정희의 작품선도 곧 마련할 계획이다.

출 / A5신 / 각 310면 내외 / 각 4,500원

파라독스 중국 우화

우화는 파라독스다

우화를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훌렁훌렁 읽는 책 (빌려서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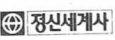
우화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차근차근 읽는 책 (사서 보십시오)

우화를 뒤집어서 거꾸로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두고두고 읽는 책 (가지고 다니십시오)

어쨌든 누구나 아주 재미있게 끝까지 읽는 책 (서점에 있습니다)

루쉰 외 22인의 중국 현대 작가가 쓴 우화 선집
이효림 엮고 옮김 / 3,500원


정신세계사의 신간
*서점에 있습니다.


전화 733-3135(대) 팩스 739-8791
(책방 정신세계) 전화 741-7033(통신판매도 합니다)

석기시대의 여자 아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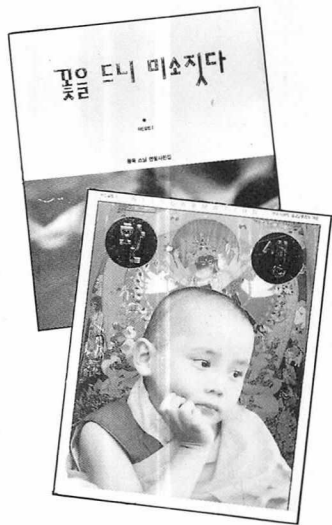
지금, 문명에 찌든 이 도시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 —

3만 년 전 — 자연이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던 아득한 원시시대에 오직 생존 본능 하나만으로 자신을 지탱해야 했던 여자 아일라. 벌거숭이 게집이므로 고아가 되어, 낯선 종족의 품에서 험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소녀, 여자, 인간 아일라. 그 석기시대의 여자 아일라가 보고 싶다. 지금, 문명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인간들의 이야기 — 《석기시대의 여자 아일라》.

진 아무얼 장편소설 / 황보석 옮김 / 전2권 / 각권 4,500원

사진으로 보는 佛法의 세계

「환생」 「꽃을 드니 미소짓다」



사진은 하나의 정적인 형상만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그 안에는 말이나 글이 미치지 못하는 사물의 내면세계가 잠겨 있다.

이러한 사진의 세계로 불법을 설교하려는 사진집 2권이 불광출판사에서 발행됐다. 「수미단」에 이어 출판된 사진 설법 2·3집은 「꽃을 드니 미소짓다」와 「환생」

「꽃을 드니 미소짓다」는 지리산 쌍계사 총무인 동옥스님이 십여년간 찍어온 연꽃 사진 집이다. 연꽃의 줄기는 우주의 축을, 연밥의 9개 구멍은 구름을, 3개의 연뿌리는 불법승 삼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꽃만큼 불교의 교리와 부합되는 꽃이 없다. 총 67장의 연꽃 사진이 수록된 이 책은 연꽃을 생생하게 영상화한 본격적인 사진집이 없는 국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불자에게는 信心을 줄 것이고 불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연못 한가운데 오롯이 피어

있는 사진속의 연꽃이 자연의 미덕으로 비쳐질 것이다.

한국 티베트 불교교류협회가 엮은 사진설법 3집 「환생」은 티베트의 불교를 소개하는 사진 집.

티베트 승려들의 토론 모습과 함께 불교와 연관된 그들의 삶이 생생한 영상미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사진과 함께 각 사진의 설명이 있고 책 후반부에 티베트 불교와 링린포체에 관한 기사가 덧붙여져 있어서 티베트의 불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까지도 읽을 수 있다.

티베트는 관음보살의 화신이라 추앙받는 승왕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전국민이 불교를 숭상하며 불교전통을 이어온 나라로 그곳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많다. 그중에서도 달라이라마의 왕사였던 링 린포체의 22년에 달하는 환생기록은 불교의 윤회관을 드러내 놓는 단면이다.

“내게 조그만 담요를 다오. 작은 소년이 되어 세상에 돌아오마”라는 말을 남기고 열반에 든 링 린포체가 텐진 초광이라는 아이로 다시 태어나 108가지의 시험을 거치는 내용은 자못 신비롭다. 이 책에는 환생한 링 린포체의 어렸을 때 사진 이외에도 1991년 5월 우리나라를 찾아와 범문하는 모습도 곁들여져 있다.

즉 이 사진집은 링 린포체가 환생한 기록이며 불교 윤회설을 입증해 주고 있는 자료집이다. 사진은 티베트 망명정부로부터 직접 제공 받은 것들로 인과응보와 윤회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불광출판부 / B5변형 / 각 80면내외 / 각 20000원

전산물리학의 첨단이론 소개

「내일을 여는 책」 시리즈



이화여대출판부가 새롭게 기획한 '내일을 여는 책' 시리즈 첫책인 컴퓨터를 이용해 물리학을 연구하는 첨단학문인 '전산물리학'의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학부와 대학원 초급과정 학생들이 컴퓨터를 직접 사용하며 계산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 물리현상을 컴퓨터 모형 계산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다.

현대물리학에서는 물리학, 수치해석, 컴퓨터 프로그램 지식이 종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적절한 컴퓨터의 사용은 필수적. 따라서 이 책은 간단한 수학적 예제들을 통해 수치 해석의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삼미분방정식·경제값과 고유값·특수함수와 가우스 구적법·행렬연산·타원 편미분방정식·포물선 편미분방정식·몬테칼로 방법 등 최소한의 수리기법을 각 장으로 나눠 연구과

제와 함께 풀어감으로써 고전역학, 양자역학, 통계역학 분야의 주요 원리를 컴퓨터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예를 들어, 매우 복잡한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별의 충돌에너지'나 '우물포텐셜' 문제도 PC를 통해 쉽게 그 근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 역학 등에서 문제가 풀렸다고 해도 그 해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평면적 연구방법에서 진일보해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입체적 해결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예제와 연구과제를 수록한 프로그램들이 IBM-PC나 맥킨토시에 맞게 디스크로 제작되었고, 부록으로 이 프로그램이 코드들을 작동시키거나 수정하는 프로그램 사용법을 첨가했다.

저자인 스티븐 쿠닌은 현재 칼텍(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이론물리학 교수로, 전산물리학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다. 번역은 양종만(이화여대 물리학과), 김재삼(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가 맡았다.

21세기 미래를 위한 학문적·이론적 연구성과를 수렴할 이 기획시리즈는 곧이어 「임금님의 새 마음 : 컴퓨터, 마음, 물리의 법칙」 「과학의 지혜」 「다시 꾸며보는 세상 : 생태학적 여성운동의 이론들」 「페미니스트 문화비평과 후기구조주의」 「아나키즘」 「정보수집과 통계의 이해」 등을 펴낼 예정.

이화여대출판부 / A5신 / 644면 / 25000원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야-떠나자! 자연의 세계, 모험의 세계로!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 1

모험도감

캠핑 생활의 친절한 선생님!
자연을 친구 삼아 즐기는 짜릿하고 신나는 캠핑 생활—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만 하는 우리들.
야외생활의 길잡이, 「모험도감」이 여러분을 도와 줍니다.
• 2도 인쇄/340쪽/각권 값 4,800원



◆ 모험도감에 실린 주요 내용

걷는다 : 신발을 고른다, 걷는법, 옷차림, 배낭꾸리기.
먹는다 : 우선 집에서 요리를 해보자, 밥 짓기, 식칼 사용법.
잔다 : 노숙을 해보자, 잘 자려면, 텐트치는 법.
만들며 논다 : 나무그릇 만들기, 해먹치기, 목공예품 만들기.
동물과 식물을 만난다 : 가까운 곳의 나무 관찰 뉴시를 하자.
위험에 대처한다 : 길을 잃었을 때, 버락을 피하는 법.

◆ 자연도감에 실린 주요 내용

자연을 관찰하는 방법, 가까이 있는 곤충 집 가까이 있는 포유동물 철새의 이동 개구리의 사는 모습, 강 하루에 사는 생물.



자연도감

동식물은 다정한 내 친구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만나는 수많은 동식물은 다정한 친구. 포유류, 조류, 어류, 식물……
우리와 함께 사는 동식물을 다룬 「자연도감」은 자연을 가르쳐 줍니다.
• 2도 인쇄/340쪽/각권 4,800원